≪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러디와 비동일성 담론

김희숙*

〈차 례〉

1. 서론
2.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러디
3. 지식인담론과 분단디아스포라담론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패러디와 담론의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동명의 텍스트를 패러디한 것으로 텍스트의 구조는 구보의 '하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인훈의 구보는 박태원의 구보의 하루를 16번이나 반복하나 의미의 미끄러짐이 있다. 이는 두 작가가 자신이 살던 각 시대를 자본주의 근대로 이해했으나, 이를 다른 방법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자가 모더니즘의 기법을 사용하여 내적 총체성을 구현하려 했다면 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법으로 미결정적이고, 열려진 세계관을 반영하고자 했다.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

최인훈 텍스트는 지식인담론과 분단디아스포라담론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담론주체와 지배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보면 비동일성담론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구보는 당대 사회가 제국주의의 식민성에 의해 지배받고 내부식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 저항이 없으며, 분단디아스포라로서의 구보 또한 분단이 강대국의 이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남북한의 대화 또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좌우됨을 인식했으나 저항적 주체로 서지 못한다.

주제어: 패러디, 하루, 비동일성담론, 신식민적 근대성, 지식인담론, 분단디아스포라담론, 순응적 비판

1. 서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은 1930년대 박태원의 모더니즘 계열의 텍스트이다. 당대 지식인의 방황과 절망 의식을 경성이라는 도회를 중심으로 표출한 소설로 전(前) 시기의 사회주의 계열의 소설 형태를 벗어난 내적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텍스트이다.

박태원의 소설은 1970년대 최인훈에 의해 패러디[2] 텍스트 ≪소

1)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 지성사, 2011년(초판 15쇄).

2) 1930년대 박태원에 의해 창작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70년대 최인훈에 의해 같은 제목으로 패러디 되었고, 1990년대 주인석에 의해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로 패러디 된다(주인석은 1995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검은 상처의 블루스-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는 단편집을 출간하는데,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단편에는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또한 1980년 오규원에 의해 〈시인 구보씨의 일일〉(≪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문학과 지성사, 1987년)이라는 시로도 패러디된다.

설가 구보씨의 일일≫[3]로 창작된다. 최인훈은 ≪화두2≫에서 '육체적 빙의 감각'에 따른 환생과 계승의 차원에서 박태원 소설을 패러디한다고 밝힌다. 기술적 양식을 차용하기 보다는 그들이 계속 지켜보지 못한 인생과 세월과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나가는지를 그들의 정신으로 나의 육체를 가지고 보고자 함이라고 말한다.[4] 이 말을 통해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창작 정신이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로 변모·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인훈의 창작 의도를 검토하면 박태원 소설의 패러디는 그 형식적 측면 못지 않게 담론적 측면도 고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러디 양상을 박태원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밝힌 후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담론양상을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담론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패러디

최인훈 소설의 패러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두 텍스트의 전체 구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박태원 텍스트는 모데르놀로기(Modernologie: 考現學)[5]의 기법을 충실히 반영한 소설이다.

---

3)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69년 『월간중앙』 12월호에 처음 발표되었고, 1970년 『창작과 비평』에 2장이 발표되었으며, 1972년 『월간중앙』에 〈갈대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또한 1972년 이 작품들을 연작으로 묶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4) 최인훈, ≪화두2≫, 문학과 지성사, 2008년, 226쪽.

5) 古現學(modernologie)이란 고고학(archaeology)의 반대개념으로 今和次朗 등에 의해 소화 2년(1927년)에 출간된 『고현학 박람회』에서 유래된 명칭

구보 씨의 활동무대가 되는 경성 공간이 하루의 산책을 따라 분편화 되어 드러나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져 있다. 구보의 산책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경성공간과 구보의 의식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30년대의 사회와 당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삶과 고뇌를 만나게 된다.

구보의 산책은 아침에 대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된다. 총 31개의 단락 중 29개의 단락에서 구보는 '집→천변→화신상회→전차(경성운동장→대학→병원→훈련원→약초정)→조선은행앞→다방→거리(태평동거리→남대문 밖)→경성역(대합실→개찰구 앞→구내다방)→조선은행 앞→다방→거리(종로네거리)→다방→거리→대창옥→거리(황토나루→광화문통)→다방→거리(경성우체국→종로)→술집→낙원정→종로네거리→집'으로 이동한다. 시간 경로는 오전 11시~12시 사이에 집에서 출발해서 다음 날 새벽 2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으로 최인훈 텍스트는 모두 15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은 소제목이 부여되어 있다. 이동공간과 출입시간을 중심으로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다. 이 책에서 1923년 동경 대지진 이후의 복구과정에서 급속히 도래된 서구화 풍속(은좌까페여급의 머리매무새와 백을 든 복장, 신사의 와이셔츠 깃과 단장 등)을 시대변화를 대변하는 문명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요컨대 고현학이란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두루 살펴 일반 공통된 징후나 현상을 잡아 사회의 본질적인 제요소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표 1〉

장	날짜	출발 시·공	여정	최종 시·공
1장 느릅나무가 있는 풍경	1969년 동짓달 그믐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겨울)	아침, 집	자광대학→음식점→다방 →출판사→9다방→중국 집→술집	8시경 귀가하는 버스
제2장 창경원에서	어느 봄날	오후 1시 5분, 창경원	공작·칠면조·꿩·학·소 ·원숭이·낙타와 타조· 여우·원숭이·너구리·흰 곰·검정곰·사자→식물 원→매점→문	창경원 문
제3장 이 강산 흘러가는 피난민들아	늦가을	아침, 집	한심대학→양서출판사→ 또 다른 출판사→심등사	밤, 집
제4장 위대한 단테는	1971년 초여름 어느 날	1시쯤, 찻집	완당집→극장→책방거리 →저녁, 집	밤, 외출
제5장 홍콩 부기우기	장마가 갠 어느날 늦은 아침	아침, 집	출판사→다방→시민회관 →지하도 계단	점심, 지하도 계단
제6장 마음이여 야무져다오	여름	오전, 버스 정류장	친구가게→예배당 결혼식 →명동→다방→출판사 →친구가게	저녁, 친구가게
제7장 노래하는 샤갈	1971년 9월의 어느 날	오후 2시쯤, 경복궁	샤갈특별전→뒤뜰	경복궁을 나옴
제8장 팔로군 좋아서 띵호아	가을	아침 10시, 집	(내방(10시)→안방)→이 발관→집→버스정류소(1 시)→다방→종로	종로

제9장 가노라면 알겠지	11월 하순의 어느 날 일요일	아침, 집	내방→마루→안방→내방→집을 나섬(11시)→결혼식장(집)→다방→헌책방·가게→점심 먹으러 감	거리
제10장 갈대의 사계	1971년 12월 중순		집에서 쉼(콧물감기)	
	감기가 떨어지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버스 안→자광대학	
제11장 겨울 낚시	1972년 정월 초순의 어느 날	아침, 숙명 여학교 앞길	찻집→일본대사관 앞→민중일보사→한식집→잡지사→다방	오후, 다방
제12장 다시 창경원에서	1972년 2월 하순 어느 봄날	오후, 친구의 사무실	친구의 사무실→창경원(동물원→유물전시장→연못→케이블카→식물원→관람기→등나무 밑 돌의자)→친구 사무실→(출판기념회로 갈 예정)	
제13장 남북조시대 어느 예술가의 초상	1972년 3월 하순 어느 봄날	오후, 버스정 류장	시민회관→양품가게→다방→이중섭전람회	이중섭 전람회
제14장 홍길레진 나스레동	1972년 4월 중순	버스 정류장	문인협회→일본대사관 앞→한국신문사→중국집→또 다른 잡지사(오후 2시)→산업신문사→출판사→친구가게(5시쯤)→집	집 (저녁 무렵으로 추정)
제15장 난세를 사는 마음으로 석가씨를 꿈에 보네	5월도 마지막 갈 무렵	새벽	내방→툇마루→내방→뒷산→내방	점심 전

위의 표에서 보면 텍스트 내의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장별 시기와 하루의 시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장별 하루의 일이 전개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969년 : 겨울(1장)
1970년 : 봄(2장) → 늦가을(3장)
1971년 : 초여름(4장) → 여름(5장) → 여름(6장) → 9월(7장) → 10월(8장) → 11월(9장) → 12월(10장)
1972년 : 1월(11장) → 2월(12장) → 3월(13장) → 4월(14장) → 5월(15장)

1장에서의 겨울은 '동짓달 그믐께를 앞둔 어느 날'이라고 하였으므로 12월로 짐작된다. 이로 보면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총 기간은 2년 5개월 내지 6개월이라 할 수 있다. 2년 6개월이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15장에 들어가 있는 허구텍스트의 시간적 배경이 6월이고, 전체 텍스트는 허구텍스트를 끝으로 텍스트가 끝나므로 허구텍스트의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계산된다. 작가는 이 기간 동안 무작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하루 혹은 1달 중의 하루들을 선택하여 구보씨의 하루 일과를 제시하고 있다. 10장에서 두 개의 하루가 제시된 것을 고려한다면 총 16개의 하루가 나타난다.

또한 하루의 일과를 제시한 시간의 길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장 / 시간	새벽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1장		○					●(8시경)
2장					○(1:5분)		
3장	○						●
4장					○(1시쯤)	● (집)	○(외출)
5장		○		●			
6장			○			●	
7장					○(2시쯤)		
8장		○(10시쯤)					
9장		○					
10장							
11장		○			●		
12장					○	●	
13장					○		
14장			○			●	
15장	○		●				

구보가 하루 중 활동한 시간대이다. '○'는 텍스트 내에서 제시된 구보의 활동 시작 시간을 의미하고 '●'는 마치는 시간을 가리킨다. 위 표를 통해서는 구보의 일과가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감기로 인해 종일 집에 있었던 날과 감기가 나은 어느 날의 외출은 시간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텍스트 내에서 제시된 구보의 활동 시작 공간과 마치는 공간 또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다. 집에서 시작하여 집에서 끝내는 하루는 귀가버스 안을 포함하여 총 4번이며, 다른 장소에서 시작하여 집에서 끝내는 하루가 2번, 집에서 시작하여 다른 장소에서 끝내는 하루가 3번, 집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시

작하고 끝내는 장소가 3번, 기타 집이 아닌 장소에서 시작하여 집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끝내는 하루가 4번이다.

최인훈의 박태원 패러디를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최인훈은 박태원의 구보의 하루를 16번이나 반복한다. 이는 계절의 순환에까지 확대되어 제시되고 독자로 하여금 최인훈의 구보가 끊임없이 유사하게 반복된 생활을 할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박태원과 최인훈은 하루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두 작가는 모두 1930년대와 1970년대를 자본주의 근대로 이해하고, 이 '근대성'을 텍스트에 제시한다. 그러나 박태원이 1930년대의 자본주의를 모더니즘의 방법으로 제시하려 했다면 최인훈은 1970년대의 후기자본주의를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박태원은 1930년대의 식민적 근대성을 모더니즘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모더니즘은 부르주아적인 근대성이 병폐적 모순을 드러낸 역사적 단계에서 나타났다. 모더니즘은 자본주의의 병리적 현상인 사물화 현상 및 그로 인한 인간 소외 등에 대한 저항으로, 정치적 저항의 방법보다는 미학적 저항의 방법을 시도한다. 모더니즘은 파편화된 현실 제시를 문학적 원리로 사용하나 그 가운데서도 총체성을 구현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모더니스트들은 재현 원리 대신에 다양한 미학적 혁신을 시도하여 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 몽타주, 알레고리 기법 등을 사용하여 내적 총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우리 문학에서 모더니즘의 출현은 1930년대 자본주의적 도시화와 관련되고 자본주의적 발전은 또한 일제 식민지 침탈과 결부된다. 30년대의 도시화는 식민지 공업화와 더불어 일제의 파시즘 침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군수기지 확보와 노동력 착취를 위한 식민지 공업화는 노동자의 비인간화,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기형

적인 도시발전을 낳게 된다.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모더니즘이 사물화현상으로 인한 세계의 상실과 그로 인한 자기인식, 강압에 의한 세계의 상실로 인한 주체의 무력화 등으로 나타난다.[6)]

박태원은 산책자인 구보를 등장시켜 경성의 분편화 된 모습을 제시하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보의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플롯마저 해체된 상태에서 '자극-연상'으로 유기적 관련성이 없는 개별적 사건이 전개된다. 구보의 산책을 따라 가면 독자는 경성공간과 구보의 의식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30년대 사회와 당대를 살았던 지식이과 민중들의 단편적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독자는 제시되는 구보의 하루가 구보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1년 가운데 하루임을 추측하게 되고, 구보의 눈에 보이는 경성의 물상과 인간을 통해 당대 경성의 모습을, 구보의 내면세계를 통해서 당대 지식인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다. 이로 본다면 박태원의 소설은 완결된 총체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특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러디스트 최인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방법으로 70년대의 구보의 하루들을 제시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적 근대사회 내부에서 자기 자신의 전통을 거부하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공통성을 지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달리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뿌리인 계몽사상을 불신할 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어 왔던 모든 근대기획들을 거부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계몽사상이나 헤겔의 정신의 변증법, 그리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도 거부한다. 또한 근대사회를 대체할 정치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무정부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허무주의의 성격을 띤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과학의 원리를 창작원리로 수용한다. 포스트모던문학은 괴델의 미결정성의 원리를 문학적으

---

6)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0년(1판 4쇄), 209~212쪽.

로 수용하여 재현원리의 파괴, 내용의 결여 등으로 총체성 자체를 거부한다. 괴델의 미결정성의 원리는 세계가 총체성을 지니지 못하므로 총체성을 설명할 완결된 형식적 논리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일종의 모순에 의해 정당화 되고 하나의 체계는 그 체계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속하는 미결정적 요소를 지님으로써 체계적 완결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열려진 체계이다. 이 같은 원리를 수용한 포스트모던 소설 또한 현실이 열려진 체계로서의 불확정성을 지닌다. 따라서 단일한 완결된 형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소설이란 글쓰기 자체가 현실과 혼류됨으로써 메타픽션은 항상 완결된 형식을 해체한다.[7]

최인훈의 텍스트는 구보의 하루를 제시하는데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구보의 하루들은 '1969년 동짓달 그믐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어느 봄날', '늦가을의 아침', '1971년 초여름의 어느 날', '장마가 갠 어느 날 늦은 아침' [8]등으로 불명확하게 제시되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구보가 활동한 공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포스트모던한 세계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없는 세계를 재현원리에 입각해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꿈, 허구 세계 등을 도입하여 현실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한 것 또한 포스트모던한 세계인식의 방법 때문이다. 1장 첫머리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된다. 구보씨는 '잠에서 깨는 참'에 두루마리에 쓰진 '일과'를 보았다. '잠에서 깨는 참'이란 시간은 완전히 잠속의 시간도, 현실의 시간도 아닌 비몽사몽간이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시간에 구보씨는 현실

7) 나병철, 같은 책, 235~242쪽.
8) 이후는 (표 1)을 참고하시오.

속의 시간에서 해야 할 일과를 써 놓은 '일과'를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일과는 아마도 제1장의 구보의 하루와 관계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텍스트의 마지막장인 15장 끝부분은 현실과 허구의 세계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 장은 72년 '5월도 마지막 갈무렵'의 구보의 하루이다. 구보는 오전에 소설 한 편을 끝내게 되는데, 텍스트는 이 소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즉 텍스트의 끝은 소설의 끝인 것이다. 마치 텍스트 내 현실이 끝나자 소설이 끝난 것도 같고, 소설이 끝나자 텍스트 내 현실이 끝난 것도 같아 현실과 허구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점은 텍스트 내 현실의 시간과 텍스트 내 허구의 시간이 선조상으로 연결되는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텍스트 내 현실의 시간은 5월이고 소설의 시간은 6월로 짐작되는 '초여름'이기 때문이다. 앞서 장별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것에 따르면 4장의 71년 초여름(6월로 짐작) 이후로 텍스트는 월별로 진행되므로 텍스트 내 소설의 배경 '초여름'은 6월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인훈의 박태원 소설 패러디를 구보씨의 '하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인훈은 박태원 소설의 주체인 구보의 하루를 반복하되 동일하게 반복하지는 않는다. 박태원의 소설에서는 구보의 하루가 시작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제시되고, 이는 은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인훈의 소설에서 구보의 하루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끄러지며 제시되고, 각 하루들은 환유의 역할을 한다.

3. 지식인담론과 분단디아스포라담론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담론을 당대 지배이데올

로기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9] 이는 외관상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를 취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당대 사회를 어떻게 해석하며 담론 주체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최인훈 텍스트의 시간적 배경은 69년 12월부터 72년 5월/6월까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강대국의 권력과 자본에 의한 '신식민' 이 진행되던 때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내 등장하는 세계사적 사건은 월남전, 미소화해와 남북적십자회담이다. 월남전은 미소화해와 병치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약소국의 비극으로 읽힌다. 미국과 소련은 이데올로기란 명분으로 세계를 양분하여 반목하게 하였지만 결국 자국의 이권을 위해서는 화해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명목상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을 치르게 한 전장 중 하나인 월남에서는 여전히 월맹과 월남으로 양분되어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은 외관상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국은 강대국의 이권 싸움, 강대국의 자본과의 싸움이 되고, 미소는 월남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한 것이다.

미소, 미중의 화해는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전장으로 상징화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되게 된다. 이 사건은 텍스트에 산재되어 나타나며 월남인인 구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는 또한 다른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을 연상시키는데, 월남 화

9) 페쇠는 주체가 구성되는 세 가지 기제에 따라 담론양식을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동일화담론으로 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순응적인 주체들의 양식이다. 순응적 주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한다. 둘째는, 반동일화 담론이다.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항적인 주체들의 양식이다. 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며, 첫 번째 양식과 대립을 이룬다. 셋째는, 비동일화 담론으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주체들의 양식이다. 이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맥도넬 지음・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년, 11~17쪽).

가 이중섭, 망명 작가 단테와 샤갈 등이 단편적으로 제시된다. 이들은 모두 피난민으로서 디아스포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구보와 유사하다. 미소냉전의 시기에는 남북의 국경 또한 겨울강을 연상시키지만 미소화해의 시기에는 한국도 화해의 물결을 탄다. 그러나 외관은 적삽자사가 중심이 되었지만, 실제는 관주도형의 남북적십자회담은 실질적인 효력 없이 73년 7차 회담이 북한측이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반공입법들의 폐지와 반공기관 및 단체들의 해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지고 만다.

최인훈이 설정한 세계사적 배경은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형태로 펼쳐졌다. 대한민국의 1970년대는 강대국에 의한 신식민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내부식민의 주체들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해나가던 시기이다. 텍스트는 월남 파병이 한창 진행 중이던 69년 겨울을 시작으로 하여 남북적십자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기 1개월 전에 끝이 난다. 텍스트 내 현실의 시간적 배경이 72년 5월로 끝이 나나, 텍스트 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6월이며 소설의 끝이 텍스트의 끝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구보씨의 일상은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 8월 전에 끝난다. 작가는 남북적십자회담에 관해 구보가 월남인 고향 친구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논하게 하는데, 결국 이는 강대국의 이권논리에 의해 남북이 좌우되는 내부식민화의 한 양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텍스트 내에서 텍스트 밖 현실의 이데올로기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1970년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신식민적 근대성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자본에 의한 종속의 역사가 가속화되어 각 부문에서 대외 종속성이 강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소국들에게 개발독재를 권하는 한편 분단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이 지배 이데롤로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단체제'와 '이식문화'이다. '분단체제'는

민중들의 전 삶의 영역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권력이 근대성과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데 정당성의 근거로 악용되었다. 결국 분단체제는 민중들을 잠정적 전쟁 상태에 두고 신식민을 가시화하고 권력의 도구로 쓰는 제도적 장치였다.

'이식문화'는 민중들의 생활에 스며들어와 민중들의 의식을 잠식시키고 서구문화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서구 문화가 이식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이다. 일제강점기에 이어 미군정 하에서 근대가 진행되었던 남한 사회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전 영역에 걸쳐서 '미국적'인 것을 차용하였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인에게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서구의 중심이었고. 미국적인 것은 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10]

다음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담론을 담론 주체인 구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구보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보의 일상과 관념세계를 살펴본다면 텍스트 내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구보는 지식인이자 예술가이다. 구보는 고학력의 지식인이고 자의식 강한 주변인이며 가정을 갖지 못한 인물이다. 당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소외된 주변인이자만, 중심의 권력과 제도의 모순을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구보는 서구문물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전통문화는 신식민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다.

구보의 하루를 통해 1970년대를 살아가던 지식인의 일상과 대사회적 태도와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5장, 16일의 구보의 하루 중 구보가 가장 많이 간 곳은 '출판사/출판기념회/잡지사/신

10)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연구」, 『상허학보』19, 446~447쪽.

문사'로 총 11회이다. 이는 구보의 직업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일과 관련한 방문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구보가 많이 간 곳은 문화생활을 위한 장소로 창경원, 영화관, 미술관 등이다. 총 5회 방문으로 구보의 여러 가지 단편적인 상념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다. 구보는 이곳에서 역사, 민족, 문화, 예술, 현대문명 등과 관련된 상념들에 잠시 빠진다. 그리고 구보의 사회적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친구·동료와의 만남이다. 총 7회의 만남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구보의 교우관계를 알 수 있다. 그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학교수, 시인, 고향친구, 평론가, 소설가 등이다. 구보는 이들과 주로 세계정세, 민족의 역사 등에 대해 논하고 고향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월남전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전개한다. 구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를 대변할 만한 주체로서 세계의 파편성을 인식하나 또 한편으로 그는 공동체와 세계의 정세에 무관심하지 않은 인물로 나타난다.

지식인 담론은 지식인으로서의 구보가 지식인에 대해 갖는 생각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구보는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 집단의 구성원들을 시인 노동자, 소설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로 명명한다. 남의 자본 밑에서 몸일을 삯 받고 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 한다면 소설가는 노동자라 할 수 없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면에서 차라리 영세 농민이나 영세 수공업자에 가깝다. 그러나 유통과정과 관련시켜 보면 노동자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소설가는 원고지에 옮기는 데까지만 자신의 손으로 하고 다음 차례는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하므로, 인쇄기계니 제본기계니 하는 생산 수단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과 생산, 유통의 관계에서만 노동을 바라본 관점으로, 구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구분하지 않으며 노동의 결과인 '작품' 또한 육체노동의 결과인 '나사못/물건'과 구분하지 않는다. 구보는

소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기능은 도외시한다. 소설은 독자들을 교화하거나 감동시키고,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이 있지만 이 같은 측면은 언급하지 않는다.

구보의 노동관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게 한다. 즉 후기자본주의에서는 이제까지 상품체계에 지배되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교환가치의 논리가 확대된다. 즉 상부구조의 영역인 지식이나 문화에서조차 기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환가치와 사물화의 논리가 상상력과 정신의 영역에까지 침투하게 된다.[11] 아도르노가 말한 '문화산업'이나 리오타르의 '지식의 상품화'는 모두 이런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12]

'소설'이나 '나사못/물건'은 '상품'으로써 물질성을 지닌다. '물질성'이란 물질에 근거하는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관념이나 의미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언어는 물질인 소리나 문자형태에 근거하지만 물질 그 자체는 아니며 의미를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 역시 물질인 두뇌를 근거로 관념을 만들어낸다. 물질성을 지닌 언어나 의식이 의미나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은 '차이성'의 의미 작용에 의해서이다. 이처럼 물질을 토대로 차이적 관계를 이루어내는 물질성은 객관현실의 사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데리다의 '텍스트성'과 유사한 것으로 사물들은 참조적 차이작용에 의해 현존과 의미를 획득한다.

구보는 소설이 노동자의 상품으로써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참된 물질성을 발생시킬 수 없는 원인을 지배권력 때문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소설쓰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 설령 어느 뛰어난 이가 있어 그놈의 '시심(詩心)'을 거울 같이 닦아 내었다 해도 어디까지든 제속에서 그랬다는 것뿐이요, 세상에 드러내

11) 에르네스트 만델 지음・이범구 역,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1985년.
12) 나병철, 앞의 책, 242~243쪽.

> 놓아야 재간일 텐데 권세의 칼' 잡은 사람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 이미 권세 잡은 사람으로서는 바른 글이 세상에 나돌게 되면 아주 언짢을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이래 놓으니 천하에 글이란 것이 안개가 아련히 끼었거나 두루뭉술한 것이 머리 간데 발 붙은 데가 그 어드멘지 요량하기가 십상 어려운 도깨비 낯짝 같은 것들만이 비칠비칠 언뜰언뜰 할 뿐이니 판국은 더욱 어지러울 뿐이다.[13]

지식인 노동자가 당대 사회에 구속당하여 자신의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비판한 대목이다. 당대의 권세 잡은 사람은 '바른 글'이 세상에 돌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것을 방지하고자 '시심(詩心)'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한다. 시심이 없는 소설은 물질성을 얻지 못한 채 상품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구보는 지식인인 동시에 분단디아스포라인이다. 분단디아스포라란 분단으로 인하여 탈국경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고향에서 살 수 없어 국경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구보가 분단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유랑민 의식은 예술가 의식과 더불어 나타나므로 그의 예술가로서의 특징은 지식인과 관련짓기 보다는 분단디아스포라와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다.

구보는 6·25 때 단신 월남한 피난민 예술가이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 이북은 구성원 모두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공동체였으나, 피난지 서울은 소통이 없고 내밀한 관계가 없는 도시이다. 자기의 속셈이나 내력, 꿍꿍이 등을 속에 감춘 채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닌 사물로 대하는 도시에서 구보는 실향민으로서의 고독감을

13)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앞의 책, 177쪽.
14) 김희숙, 『황석영 텍스트의 탈식민성 연구』, 부산대출판부, 2017년, 39쪽.

지닌 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같은 구보의 예술가로서의 특징은 그와 유사한 처지에 놓여 있던 예술가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는 단테, 샤갈, 이중섭의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다.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프랑스에 망명한 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단테는 정치적 이유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랑하면서 ≪신곡≫을 쓴다. 이중섭 또한 고향이 구보와 같으며 지난 전쟁 때 피난 온 인물이다. 구보가 즐겨 대하는 세 예술가 모두 고향을 떠나온 예술가로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타향에서의 나그네살이 등을 예술로서 승화시켰다. 구보는 이들을 통해 결국 우리들 내부의 세계는 모두가 현실이며,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15]

구보는 분단디아스포라로 분단의 원인을 외세에 있다고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국민 학교 선생이었던 구보는 제국주의의 의식화 교육으로 '천황'을 하느님의 자손으로 알고 민족의 원수인 줄 모르는 채 지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 제국은 패망했으나, 구보가 살던 북한에서는 '스탈린'이 '천황'을 대신하고 북한은 소련과 신식민관계를 형성했다. 월남한 구보에게 남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은 독재자이자 반민주주의자로 남한을 미국의 정치·경제적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섰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에서 미·소 강대국의 새로운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분단이 고착화 된 것이다.

구보가 바라본 남한 사회는 조계(組界) 지역과 같다. 헐리우드 영화나 공연이 열리는 극장 앞, 시민회관 극장 간판 아래 등은 미

15) 권 은, 「피난민 산책자와 1970년대 서울-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론」, 『시학과 언어학』30, 2015년, 114~115쪽.

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 간판 속에서 커다란 클로즈업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아리안계 외국인 배우의 얼굴과 그 밑에서 와글거리는 노오란 몽고족의 대조가 조계라든지 '정청(政廳)', '치외법권(治外法權)', '원주민(原住民)',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었다. 요즈음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부터 더욱 엽서에서 보는 그 이국도시의 모습을 닮아간다. 여자들의 화장은 아마 그런 닮아가는 모습의 으뜸이다. 모두 아리안계 여자의 모조품으로 보이게 하려고 피눈물 흘린 성과를 얼굴이라고 들고 다닌다.[16]

미국의 자본에 의해 내부식민화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이다 '아리안계 외국인 배우'의 얼굴은 동양인에게는 '모방해야 할/이식되어져야 할' 대상이다. 아리안계 외국인 배우라는 상품이 자국의 시장에서 소비되어져 갈수록 자국의 시장은 종속화 되고 결국에는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자각 없이 아리안계의 모조품이 기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선망과 동경은 '서구 대 비(非) 서구'를 '문명 대 야만'으로 설정하고 우리도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 문명국이 되고 싶다고 열망한다. 이러한 선망과 동경은 서구의 근대가 식민주의적 착취와 울분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몰각한 채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주체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진다.[17]

남북한의 통일도 자국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판문점에서의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산가족 찾기로 그야말로 가족 찾기이다. 그러나 이 모임 자체도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정책 하수인 노릇을 한 듯한 인상을 준다. 70년대 초반 탈이데올

16)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앞의 책, 137~138쪽.
17) 하정일, 「일제 말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년, 263쪽.

로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남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회담의 주체 또한 민간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적십자는 서양에서는 민간의 생활과 직결돼 있으나, 우리나라로 이식될 무렵 '관청'과 같은 역할을 했다. 남북 이산가족찾기를 위해서는 피난민 단체나 종교단체가 더 적합한 것이다.

구보를 분단디아스포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야간 통행금지제도이다. 야간 통행금지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어도 하루 6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국가가 국민에게서 강압적으로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중들의 일상적 시간과 그 시간이 점유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마저도 누릴 수 없게 하는 통행금지제도는 단순히 시공간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지'가 일상에서 반복됨으로써 국민들은 다양한 경험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이 같은 통행금지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감시하는 거대한 국가 통제 체제라고 할 수 있다.[18]

이는 지배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보는 이것들을 통해 분단의 냉엄한 현실을 자각한다. 야간통행금지는 사람들을 한밤중에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는 또한 해방 후 민중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우리 사회의 문명의 근본 터부'[19] 역할을 한다. 통금 시간이 가까워질 때마다 택시와 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6·25때의 막차를 연상시킨다. 이는 현실을 전쟁의 연장선으로 여기게 만들며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야간통행금지는 권력자에게는 권력유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또한 제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무 날이 아니었다. 예수

18)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최인훈의 〈크리스마스캐럴〉 연작 연구」, 『상허학보』19, 2007년, 453쪽.

19)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앞의 책, 203쪽.

> 교도를 빼면, 해방 후 한국문화를 말할 때 크리스마스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된다. 해방 후 이날은 예수교도와 관계없이 모든 한국 사람들의 날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 사람들은 야간 통행 제한 밑에서 살아왔는데 크리스마스가 한국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이 통행 제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만은 야간 통행제한이 걷힌다. 한 해 동안 하루만은 밤 시간에 나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해방감을 준다.[20]

크리스마스는 제도의 발상지에서와는 달리 민중들을 정치적 아나키즘, 섹스의 아나키즘, 상업적 아나키즘 상태에 빠져 혼돈으로 몰고 갔다. 그리고 지배권력과 제국은 통행금지제도를 통해서도 서로의 권위를 가시화하고, 권위가 재생산되도록 만들었다.

이상에서 최인훈의 텍스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담론양상을 살펴보았다.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1970년대의 지배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비동일성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내 주체인 구보는 신식민주의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이다. 구보는 지식인으로 당대 사회가 제국주의의 식민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안다. 구보의 인식은 식민주의를 개척해나가던 정치적 권력으로서의 제국이 '자본'이라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구보는 영화 '솔저블루'나 '아노 하타오 우테', 그리고 홍콩이라는 도시에 담긴 식민성을 단편적으로 떠올리는가 하면 미소화해,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자본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복속되어 감을 신문기사, 전시회, 친구와의 대화 등에 제시한다. 구보의 분단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 또한 구보로 하여금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구보는 분단디아스포라로서

---

20)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앞의 책, 264쪽.

분단의 근본적 원인을 강대국의 패권주의로 파악했으며 구보는 남한 사회 곳곳에 내부식민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식한다. 이런 구보의 의식은 남북적십자회담도 미소 양국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문제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구보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순응적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구보는 이 같은 비판을 정부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공식화하지 않고, 사적 담론이나 개인적 사고로 머무르게 한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김지하는 1970년대 지배 권력이었던 군사독재정권시대의 특권계층과 민중을 수탈하는 반민주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정면에서 풍자를 수행한다. 이 같은 풍자는 "성전화된 지배 언술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되받아쳐서 다시 쓰면서 지배 언술의 음모와 허구성을 폭로"[21]한다. 예를 들면 김지하의 시 〈똥바다〉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같이 생긴 파시즘, …(중략)…, 자유주의 같이 생긴 전체주의 똥, 평화주의 같이 생긴 전체주의 똥, 四海동포주의와 같이 생긴 식민주의똥"과 같은 표현이다. 여기서 담론의 주체는 너희들이 민주주의라 하지만 사실은 파시즘이고, 자유주의라 하지만 전체주의이고, 평화주의라 하지만 제국주의이고, 사해동포주의라 하지만 식민주의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면에서 되받아치면서 폭로하는 것이다.[22]

담론 주체인 구보가 서구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구보는 우리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서구문화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 서구에서 들어온 영화나 연극을 보는 남한 사람들을 광고판에 그려진 서양인들과 대조시켜 모조품과 같다고 한 점이라든지, 크리스마스가 가진 제국성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한다든지, 이를 지배 권력의 가시화라 할 수 있는 통행금지제도와

21)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31호 여름, 24~26쪽.
22)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 이론』, 태학사, 1997년, 61쪽.

연관 지어 사고하는 등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순응하는 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항하는 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다. 단지 우리는 작품 전체에서 서구문화의 추종은 식민화에 다름 아니라는 구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보가 작품의 서두와 말미에서 '절'을 찾고 사유의 세계에 들어감을 통해 기독교에 내재되어 있는 식민성의 극복이 동양주의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뿐이다.

이로 본다면 텍스트 내의 담론은 비동일성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담론 주체인 구보는 표면적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나/순응적이나' 그의 관념세계를 통해 본다면 비판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최인훈의 박태원 소설 패러디는 우선 '하루'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와 관계있다. 두 텍스트 모두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라는 동일한 제목 하에 구보의 일상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최인훈은 박태원 텍스트에 등장하는 구보의 하루를 총 16회에 걸쳐 반복한다. 그러나 박태원 텍스트에 제시된 구보의 하루는 처음과 끝, 과정이 분명한 완결된 하루라면, 최인훈의 구보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하루들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박태원은 산책자인 구보를 등장시켜 경성의 모습을 파편적으로 제시하는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보의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플롯마저 해체된 상태에서 '자극-연상'으로 유기적 관련성이 없는 개별적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나 이 분편화된 모습들의 나열 속에 30년대를 살아가던 인물과 물상, 당대의 가치관이 보여짐으로써 완결된 총체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와는 달리 최인훈 텍스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관을 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미결정성의 원리를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재현원리의 파괴, 내용의 결여 등으로 총체성 자체를 거부하는데, 최인훈의 텍스트는 구보의 하루 제시방법, 현실과 허구 간의 경계의 모호성 등의 기법으로 이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패러디한 텍스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텍스트 패러디를 통하여 지식인담론과 분단디아스포라 담론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담론은 1970년대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담론 주체의 관계로 보았을 때 비동일성담론이라 할 수 있다. 구보는 지식인으로서 당대 사회가 제국주의의 식민성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정치적 제국이 자본으로서의 제국으로 바뀌고 우리나라는 이에 복속당하고 있음을 인식하나 구체적 저항이 없다. 또한 분단디아스포라인으로서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분단이 되었으며, 남북대화조차 강대국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있으나 반항적 주체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 지성사, 2011년(초판 15쇄).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문학과 지성사, 2010년(3판 3쇄).

2. 논문

강부익, 「점성(粘性) 자본주의의 확산과 식민지 조선인의 운명」, 『박태원 문학과 창작 방법론』, 깊은 샘, 2011년, 159~193쪽.
김미아, 「박태원 소설의 도시성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년.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31, 1992년 여름.
김준오, 「문학사와 패러디 시학」,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년, 13~45쪽.
권 은, 「피난민 산책자와 1970년대 서울-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론-」, 『시학과 언어학』 30, 2015년, 97~120쪽.
류보선, 「이상과 어머니:박태원 소설의 두 좌표」, 『한국 근대문학의 정치적(무)의식』, 소명출판, 2005년, 227~259쪽.
박성창, 「모더니즘과 도시」, 『박태원 문학의 현재와 미래』, 깊은 샘, 2010년, 129~158쪽.
박태원, 「내 예술에 대한 항변」, 『조선일보』, 1937.10.22.
백문임, 「모더니즘과 공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7, 1996년, 481~501쪽.
서은주, 「한국적 근대의 풍속-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연구」, 『상허학보』19. 2007년. 441~469쪽.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년.
정현숙, 「1930년대 도시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31, 2006년, 52~72쪽.
조선희, 「최인훈 패러디 소설의 시간적 특성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07년.
하정일, 「일제말기 이태준 문학과 내부 식민주의」, 『탈식민의 미학』, 소명출판, 2008년, 259~285쪽.

3. 단행본

고현철,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이론』, 태학사, 1997년.
김홍식, 『박태원 연구』, 국학자료원, 2000년.
린다 허치언 지음, 김상구・윤여복 옮김, 『패러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년.
맥도널 지음・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1997년.
이재선, 『한국 소설사』, 민음사, 2000년.
임형택・최원식 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93년.

최인훈, ≪화두2≫, 문학과 지성사, 2008년.
Bill Ashcroft, *The Empire Writes Back :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 London: Loutlege, 1989.
Michel Pêcheux,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trans : Harbans Napal) St. Martin's Press, 1982.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김희숙
소속: 부산대학교
주소: 부산시 기장군 정관로 350
전자우편: 8401khs@hanmail.net

[Abstract]

The Parody and the Disidentification in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Kim, Hee-Suk

≪A Day in the Life of Kubo the Novelist≫ written by Choi, In-Hoon is the parody text of the same name's novel written by Park, Tae-Won and the structure of text is focused on Kubo's day. Kubo created by Choi, In-Hoon repeat the day of Kubo created by Park, Tae-Won 16 times. But it has the slip of sense. The former gave body to inner totality as modernism's skill. Whereas the latter reflected the indecisive and opened world as postmodernism's skill.

Choi, In-Hoon's text contains intellectual discourse and division diaspora discourse, And this is the disidentification discourse according to the relation of the discourse subject and the Ruling Ideology. Kubo as the intellectual knew the imperialism and interal colonization in our society but he didn't resist concretely. Kubo as the division diaspora also realized that the division were made for the rights of the powers but he didn't have an erection as the resistant subject.

Key words: parody, Day, disidentification, Neo-Colonial Modernity, intellectual discourse, division diaspora discourse, active critical